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법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난 16일, 5층 대강당에서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을 모신 가운데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약 400여 명의 교직원과 환우들이 참석했으며, 식순에 따른 육법 공양과 함께 본원 1층 로비에서 환우들의 건강 발원을 기원하며 소원 초 띄우기와 관불식을 진행했다.

이날 법문을 통해 자광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에 대해 설명하며,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만나 서로 상관관계, 의존관계, 협력관계를 이룬다. 이것이 인연이다.”라고 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이며, 나를 아끼듯 남을 아끼고 돌봐야 한다. 이것이 자비다.”라고 설명했다. 또,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같이하여 부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선물로 준비한 물티슈를 병동환자들에게 전달하고,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부처님 오신 날, 고양시 연등축제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8년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지난 5월 17일 고양시 사암연합회 주최 ‘고양시 연등축제’에 교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했다.

고양시 연등축제는 지역 발전을 기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고양시 연등축제에는 우천의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로 봉축 법요식과 축하공연 등을 진행해 시민과 불자들의 축제 한마당이 됐다. 이어, 시민들은 화정동 중앙공원을 출발하여 화정동 일대 제등행렬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올 한해 건강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연등을 밝혔다.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특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하여, 5월 10일 5층 대강당에서 외부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 환경을 반영하여, ‘안전한 간호현장, 간호와 법 사이’라는 주제로 외부강사 이경희 의료전문변호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여러 의료사고 관련 판결문을 예시로 간호사의 책임, 간호기록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며,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전문직 간호사로서 본인의 간호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진영숙 간호부장은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간호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강의에 대한 높은 기대감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양·파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25일 고양, 파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사회사업실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소재 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사와 시청 및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담당자들에게 병원 의료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마다 분절된 복지서비스를 공유하여 위기사례 발생 시 협력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했다.



알리미

의과학연구소 세미나

주제 : 연구비 수주 전략 공유를 위한 연구단 단장 초청 강의·토론
일시 : 5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6시45분 | 장소 : 본원 지하 1층 제3세미나실

연구진흥 초청 세미나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의료산업
일시 : 5월 29일 화요일 오후 5시~6시 | 장소 : 본원 4층 중강당